

위기의 세상, 잊힌 이름들
100명의 위인들을 소환하라!



위인카드

A·pland

일러두기

- 시대 구분은 고조선부터 고려 건국 전까지의 고대, 고려(중세), 조선(근세), 대한제국 수립부터 해방 전까지를 묶어서 일제강점기(근·현대)로 구분했습니다.



고대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 인물의 주요 활동 시기를 기준으로 인물의 바탕색을 정하고 그 시대를 표시했습니다. 다만,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시대를 모두 표시했습니다.
- 안중근의 경우 조선시대에 태어나 한일합병 전에 순국하였지만 바탕색을 일제강점기 색으로 했고 '조선~대한제국'으로 표시했습니다.
- 이종무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에서 고려시대 인물과 함께 나오지만 앞의 원칙에 따라 조선시대 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의 주요 업적인 대마도 정벌이 조선 세종 때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 100명의 인물을 주요 업적이나 활동 분야를 기준으로
① 왕, ②장군/무신, ③학자/문신, ④예술가/주인공,
⑤종교인, ⑥의인으로 분류하고 기호로 표시했습니다.



왕



장군/무신



학자/문신



예술가/주인공



종교인



의인

- 강감찬의 경우 문과에 급제한 문신 출신이지만 주요 업적이 귀주대첩을 이끈 장군이기 때문에 장군/무신으로 분류했습니다.

단군



고조선을 세운 왕

• 고대시대(고조선) • 왕 • ?~?

“쑥과 마늘만 먹고 백일을 지내거라.”
동굴에서 쑥과 마늘만 먹고 백일을 버텨낸 곰은 사람이 되어 하늘 신의 아들 환웅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단군을 낳았어요. 단군은 아사달을 수도로 삼아, 이 땅에 최초의 나라 고조선을 세우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인간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동명왕



고구려를 세운 왕

• 고대시대(고구려) • 왕 • BC58~BC19

물의 신인 하백의 딸 유화가 하늘의 신 해모수를 만나 부여나라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놀랍게도 유화가 낳은 건 알이었는데, 그 알에서 태어난 아이가 주몽이에요. 활을 잘 쏘서 주몽이라 불렸어요. 주몽은 부여나라 왕자들의 질투를 피해 남쪽으로 내려가 졸본에 고구려를 세우고, 동명왕이 되었어요. 고구려의 건국신화예요.

온조왕



백제를 세운 왕

• 고대시대(백제) • 왕 • ?~28

온조는 동명왕의 셋째 아들이자 고구려의 왕자였어요. 동명왕의 큰아들 유리가 고구려의 두 번째 왕이 되자 형제인 비류와 함께 고구려를 떠났어요. 비류와 온조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사람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한강 근처에 도착한 온조는 위례성을 수도로 삼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 나라가 바로 백제예요.

박혁거세



신라를 세운 왕

• 고대시대(신라) • 왕 • BC69~4

한반도 남쪽에 사는 여섯 마을의
촌장들이 회의하는데 말 울음소리
가 크게 울렸어요. 가봤더니 박처
럼 커다란 알이 있었어요. 거기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박처럼 커다
란 알에서 태어나서 박 씨, ‘세상을
밝게 하라’는 뜻으로 ‘혁거세’라 불
렸어요. 아이는 훗날 신라를 세우
고 이름처럼 나라를 잘 다스렸어
요. 신라의 건국신화예요.

05

광개토대왕



고구려의 정복왕

• 고대시대(고구려) • 왕 • 374~412

광개토대왕은 18세에 왕위에 오른 후 북쪽으로는 만주벌판까지, 남쪽으로는 백제와 신라를 꼼짝 못하게 해서 고구려 땅을 크게 넓혔어요. 일생 동안 64개 성, 1,400여 마을을 정복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정복왕’으로 평가받아요. 광개토대왕릉비에는 이러한 왕의 업적이 담겨 있어요.

이사부



울릉도를 정벌한 신라 장군

• 고대시대(신라) • 장군/무신 • ?~?

이사부는 신라 땅을 크게 넓힌 지혜로운 장군이에요. 우산국, 즉 지금의 울릉도는 원래 작은 섬나라였는데 이사부가 꾀를 내어 정벌에 성공했어요. 이사부는 나무로 사자를 만들고 우산국 사람들을 겁줬어요. 사자를 처음 본 우산국 사람들은 벌벌 떨며 항복했다고 해요.

백결



신라의 뛰어난 거문고 연주가

• 고대시대(신라) • 예술가/주인공 • ?~?

백결은 신라의 뛰어난 거문고 연주자예요. 너무나 가난해서 다들 ‘백결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백결은 옷을 백 군데나 꿰매 입었다는 뜻이에요. 설날에 아내가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떡방아 소리를 부러워하자 백결이 거문고로 ‘방아타령(대악)’을 연주해 주었다고요. 그 연주를 듣고 아내는 배고픔을 싹 잊었다고 해요.

의자왕



백제의 마지막 왕

• 고대시대(백제) • 왕 • ?~660

신라가 중국의 당나라와 힘을 합쳐 동시에 백제로 쳐들어왔어요. 왕은 계백 장군에게 나가 싸우라고 명령했어요. 계백 장군은 황산벌에서 신라군에게 패했고, 결국 백제는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때의 왕이 바로 의자왕이에요. 궁궐에서 일하던 삼천 명의 궁녀들이 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계백



황산벌에서 죽은 백제의 마지막 장군

• 고대시대(백제) • 장군/무신 • ?~660

신라와 중국 당나라의 연합군인 나당연합군이 바다와 땅으로 동시에 쳐들어왔어요.

“적군의 노비가 되느니 차라리 내 손에 죽는 게 나을 것이오!”

질 것이 뻔했기에 계백은 가족들의 목을 스스로 베었어요. 그리고 5천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황산벌에서 10배가 넘는 신라군에 맞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어요.

관 창



황산벌에서 목숨 바친 신라 화랑

• 고대시대(신라) • 장군/무신 • 645~660

화랑도는 ‘신라 귀족 집안의 어린
남자들이 공부와 훈련을 하는 모
임’이에요. 황산벌에서 5만여 명의
신라군이 5천여 명의 백제군한테
4번 싸워 4번을 지자, 화랑도인
16살의 관창이 홀로 백제군한테
돌격했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어
린 관창의 용감한 죽음을 보고 용
기를 얻은 신라군은 마침내 백제
군에게 승리했어요.

김유신



삼국통일을 이끈 신라 장군

• 고대시대(신라) • 장군/무신 • 595~673

김유신이 화랑도일 때 다신 술집에 안 가겠다고 어머니한테 약속했는데 깜빡 존 사이에 말이 술집으로 그를 싣고 갔어요. 졸음에서 깬 김유신은 자기가 아끼는 말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렸다고 해요. 김유신은 이후 수련을 거듭해 신라군의 대장군이 됐어요. 황산벌에서 백제군을 물리치는 등, 삼국통일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문무왕



삼국 통일을 이룬 신라 왕

• 고대시대(신라) • 왕 • 626~681

당나라와 힘을 합친 신라는 백제,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삼국을 통일했어요. 이때의 왕이 문무왕이에요. 그런데 당나라는 삼국의 땅을 다 차지하려고 했어요. 문무왕은 이제 당나라와 싸워서 백제와 신라 땅을 지켜냈어요. 문무왕은 죽은 후에도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자 동해에 묻어 달라고 했어요.

원효대사



해골 물 전설로 유명한 신라 승려

• 고대시대(신라) • 종교인 • 617~686

원효가 당나라로 유학하러 가던 중이었어요. 작은 굴에서 자다가 바가지에 든 물을 마셨는데 깨서 보니 무덤 안이었고, 마신 물은 해골 물이었대요. ‘모든 일은 마음에 달렸다’는 깨달음을 얻은 원효는 바로 신라로 돌아왔어요. 당시 불교는 귀족 중심의 종교였는데 원효는 일반 백성들에게 불교를 널리 널리 전파했어요.

혜초



『왕오천축국전』을 쓴 신라 승려

• 고대시대(신라) • 종교인 • 704~787

신라 승려 혜초는 4년 동안 인도 등 다섯 나라로 불교 여행을 떠났어요. 이때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책이 『왕오천축국전』이에요. 천축국은 옛날의 인도를 말해요. 『왕오천축국전』은 세계 4대 여행기로 꼽히며,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여행기예요. 아쉽게도 현재는 일부분만 전해지고 있어요.

장보고



청해진을 설치한 신라 장군

• 고대시대(신라) • 장군/무신 • ?~846

장보고는 ‘청해진’이라는 해군 기지를 오늘날 전라남도 완도군에 만들어서 일본 해적을 물리치고 신라의 배들이 안전하게 다니게 했어요. 또 배를 이용해 여러 나라의 물건을 싣어다 파는 장사로 많은 돈을 벌었어요. 사람들은 장보고를 ‘바다의 왕자’, 또는 ‘해상왕’이라고 불렀어요.

대조영



발해를 세운 왕

• 고대시대(발해) • 왕 • ?~719

멸망한 고구려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려고 하자 당나라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강제로 당나라로 옮겨 살게 했어요. 이에 대조영은 끌려온 고구려 사람들과 말갈족을 이끌고 옛 고구려 땅으로 도망쳤어요. 마침내 당나라 군대를 따돌리고 동모산에 도착한 대조영은 발해를 세우고 왕이 됐어요.

강감찬



귀주대첩으로 거란군을 물리친 장군

• 고려시대 • 장군/무신 • 948~1031

‘대첩’은 전쟁에서 크게 이기는 거예요. 1차, 2차 침입에 이어 거란의 10만 대군이 고려에 세 번째로 쳐들어왔어요. 이때 고려의 총사령관은 강감찬이었어요. 강감찬 장군은 흥화진 전투에서부터 계속 이겨서 귀주에서 거란군 병사의 대부분을 죽이는 큰 승리를 거뒀어요. 이 싸움을 ‘귀주대첩’이라고 해요.

서희



대화로 거란군을 물리친 관리

• 고려시대 • 학자/문신 • 942~998

발해를 멸망시킨 북쪽의 거란이
고려에 1차 침입했어요. 송나라와
고려 사이의 외교 관계를 차단한
후 송나라를 치려는 계획이었어
요. 이것을 꿰뚫어 본 서희가 거란
장군과 대화로 담판을 지었어요.
압록강 동쪽이 고려 땅임을 인정
하고 물러나면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했어요. 그 결과 거란은
물러나고 강동 6주 땅을 얻게 됐
어요.

정중부



무단정치를 시작한 무신

• 고려시대 • 장군/무신 • 1106~1179

신하는 학문을 주로 공부한 ‘문신’,
무술을 익힌 ‘무신’으로 나뉘어요.
고려 후기 문신들은 높은 지위를
차지한 채 백성들한테 온갖 횡포
를 일삼았어요. 그리고 무신들을
차별했어요. 이에 무신인 정중부
와 그 무리가 문신들을 죽이고 권
력을 차지했어요. 이 사건을 ‘무신
정변’이라고 해요. 그런데 무신의
횡포는 문신보다 더 심했고 고려
는 갈수록 쇠약해졌어요.

최무선



화포를 만들어 왜구를 물리친 장군

• 고려시대 • 장군/무신 • 1325~1395

일본 해적인 '왜구'가 틈만 나면 고려 땅에 쳐들어와서 백성을 죽이고 곡식을 빼앗아 갔어요. 최무선은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 화약 기술을 알아내려고 밤낮없이 중국 송나라의 기술자들을 만나고 실험을 거듭했어요. 마침내 화약과 화포를 개발한 최무선은 왜구와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21~27

죽림칠현



무단정치를 피해 숨어 산 일곱 학자

• 고려시대 • 학자/문신 • ?~?

무단정치가 길어지자, 왕은 허수
아비가 되고 많은 문신이 죽었어
요. 이에 이인로, 오세재, 임춘, 조
통, 황보항, 함순, 이담지 등 7명의
문신은 무단정치를 피해 시골에서
시를 지으며 살았어요. 이들을 ‘대
나무 숲에서 더불어 산 일곱 명’이
라고 해서 죽림칠현이라고 해요.

김부식



『삼국사기』를 쓴 학자

• 고려시대 • 학자/문신 • 1075~1151

김부식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 여러 학자와 함께 신라, 고구려, 백제에 관한 책을 썼어요. 이 책이 바로 『삼국사기』예요. 『삼국사기』는 현재 전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신비로운 이야기는 빼고 사실 위주로 썼다는 점에서 130여 년 뒤에 나온 『삼국유사』와 비교돼요.

지눌국사



조계종을 발전시킨 승려

• 고려시대 • 종교인 • 1158~1210

지눌은 고려의 국사였어요. 국사는 고려시대 때 ‘나라의 스승’에게 내려던 호칭이에요. 당시 고려의 불교는 마음의 깨달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종’과 불경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종’으로 나뉘었는데, 지눌은 이 둘을 합쳐 조계종을 발전시켰어요.

의 천



천태종을 만든 승려

• 고려시대 • 종교인 • 1055~1101

의천은 왕자 출신의 승려예요. 당시 고려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왕자가 승려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의천은 불교 공부를 더 하기 위해 중국 송나라로 유학하였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각국의 불경 연구서를 모은 『교장』을 펴내고 선종, 교종으로 나뉜 고려 불교를 합치기 위해 천태종을 열었어요.

이종무



대마도 정벌을 이끈 장군

• 고려~조선시대 • 장군/무신 • 1360~1425

고려 말 이종무는 14세의 나이로 아버지를 따라 왜군을 물리치는데 공을 세웠어요. 이후 조선을 세우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어요. 조선 세종대왕 때 이종무는 왕의 명령에 따라 왜구들이 사는 대마도로 쳐들어가 항복을 받아냈어요.

※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에서는 고려시대 인물과 함께 나오지만 대마도 정벌이 조선시대에 이뤄졌기 때문에 조선시대 색으로 표시함.

정몽주



일편단심 고려를 지킨 신하

• 고려시대 • 학자/문신 • 1337~1392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정몽주는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고려에 충성하고 고려
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
지만 이성계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함께
새 나라를 만들자는 이성계 세력
의 제안을 거절한 정몽주는 이방
원이 보낸 부하들에게 선죽교에서
결국 죽임을 당했어요.

문익점



목화씨를 들여온 관리

• 고려시대 • 학자/문신 • 1329~1398

‘우리 백성도 솜옷을 입게 해야겠다.’
문익점은 중국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솜의 원료인 목화를 보고 그 씨를 몰래 숨겨 들여왔어요. 그리고 3년 만에 목화를 기르는데 성공했어요. 문익점은 중국 원나라에서 온 스님한테 목화솜에서 실을 뽑고 옷감을 만드는 기술도 배웠어요. 목화와 무명옷 기술은 곳곳에 널리 널리 퍼져나갔어요.

최충



해동공자라 불린 학자

• 고려시대 • 학자/문신 • 984~1068

‘해동’은 우리나라를 뜻하는 말이고 ‘공자’는 유학을 만든 중국의 뛰어난 학자예요. ‘공자에 견줄 만큼 뛰어나다’라는 뜻으로 최충을 ‘해동공자’라고 불렀어요. 그는 9재학당을 세워 많은 관리와 학자를 길러냈고 훗날 조선이 유학 중심의 나라가 될 수 있는 밑받침이 됐어요. 9재학당은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원조예요.

일 연



『삼국유사』를 쓴 승려

• 고려시대 • 종교인 • 1206~1289

일연은 왕에게 불교 강의를 할 정도로 존경받는 승려였어요. 몽골의 침입으로 고통받던 고려 후기에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숨겨진 역사를 전하기 위해 『삼국유사』를 지었어요. 이 책에는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들도 실려있어요. 단군신화를 기록한 최초의 역사책도 『삼국유사』예요.

최영



요동정벌을 추진한 장군

• 고려시대 • 장군/무신 • 1316~1388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아버지가 남기신 말을 따라 최영은 평생 욕심 없이 외적을 물리치는 데에만 전념했어요. 1376년,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도 사령관이 되어 홍산에 침입한 왜구를 크게 무찔렀어요. 중국의 명나라가 우리나라 땅을 차지하려고 하자 중국 땅 요동을 치는 ‘요동 정벌’을 추진하다 이성계에 의해 죽임을 당했어요.

황희



영의정을 가장 오래 지낸 관리

• 조선시대 • 학자/문신 • 1363~1452

신하 중에 가장 높은 벼슬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에요. 이들을 정승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영의정이 가장 높아요. 황희는 세종대왕 때 영의정에 올라 18년 동안 세종대왕을 뒷받침했어요. 영의정을 가장 오래 지낸 관리이자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명망 있는 정승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맹사성



청백리로 유명한 관리

• 조선시대 • 학자/문신 • 1360~1438

맹사성은 소 타기를 즐겼다고 해요. 말이나 가마가 아니라 소를 타고 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욕심이 없고 겸손했다는 거겠죠. 이런 관리를 ‘청백리’라고 해요. 황희와 함께 세종대왕의 업적을 뒷받침했어요. 『태종실록』, 『세종실록지리지』를 펴내는 책임을 맡았고, 조선의 음악을 정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장영실



노비 출신의 조선 최고 과학자

• 조선시대 • 학자/문신 • ??

장영실은 신분이 낮은 노비 출신이었지만 기계를 만드는 뛰어난 솜씨로 궁궐의 기술자가 됐어요. 세종의 두터운 믿음과 지원을 받으며 물시계인 ‘자격루’, 해시계인 ‘앙부일구’, 강의 물 높이를 재서 홍수나 가뭄에 대비하는 ‘수표’, 별자리를 보는 기계 ‘혼천의’ 등을 발명했어요.

40~41

신숙주, 한명회



세조가 왕이 되도록 도운 신하

• 조선시대 • 학자/문신 • 1417~1475, 1415~1487

신숙주는 집현전의 관리로 세종이 한글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고, 『고려사』 등 수많은 책을 내는데 참여했어요. 나중에 세조 편에 섰어요.

한명회는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의 책사’였어요. 단종을 쫓아내고 왕(세조)이 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서 영의정까지 올랐어요.

이율곡



주기론을 주장한 학자

• 조선시대 • 학자/문신 • 1536~1584

본 이름은 이이, 율곡은 호예요.
‘호’란 편하게 부르는 별명 같은 거
예요. 신사임당의 셋째 아들로 강
릉 오죽헌에서 태어났어요. 전쟁
을 대비해 10만 군사를 길러야 한
다는 ‘십만양병설’을 주장했고 ‘주
기론’이라는 유학 이론으로 많은
학자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우리
나라 오천 원짜리 지폐의 주인공
이에요.

이퇴계



주리론을 주장한 학자

• 조선시대 • 학자/문신 • 1501~1570

본 이름은 이황, 퇴계는 호예요.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학 이론에 ‘주기론’과 ‘주리론’이 있는데, 주리론을 만든 학자예요. 또한 ‘도산서원’이라는 학교를 세워서 많은 학자를 길러냈어요. 이황과 이이는 35살이나 나이 차가 나지만 꾸준히 편지를 주고받으며 학문에 관해 토론했다고 해요. 우리나라 천 원 짜리 지폐의 주인공이에요.

신사임당



여성화가이자 이율곡의 어머니

• 조선시대 • 예술가/주인공 • 1504~1551

신사임당은 포도를 그린 「묵포도도」, 화초와 곤충을 그린 「초충도수병」 등 여러 그림을 남긴 여성 화가예요. 우리나라 오만 원 지폐의 주인공이기도 해요. 이울곡의 어머니로도 유명한데, 자신이 살던 곳이자 이이를 낳고 기른 곳이 ‘까마귀처럼 검은 대나무 집’이라는 뜻의 강릉 오죽헌이에요.

45~46

곽재우, 조헌



왜군에 맞서 싸운 의병장

• 조선시대 • 의인 • 1552~1617, 1544~1592

1592년인 임진년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어요. 그때는 일본을 ‘왜’라고 했어요. 임진년에 왜가 일으킨 전쟁이라서 ‘임진왜란’이라고 하지요. 당시 조선 군대는 왜군에게 번번이 졌어요. 이때 평범한 백성들이 군대를 만들어 왜군과 싸웠는데 이런 군대를 ‘의병’이라고 해요. 곽재우는 경상남도 의령, 조헌은 충청북도 옥천의 의병 장군이에요.

김시민



진주대첩을 이끈 장군

• 조선시대 • 장군/무신 • 1554~1592

진주성을 지키던 김시민 장군은 남강에 등불을 띄워 밤에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고, 우리 병사가 많아 보이도록 허수아비를 세워서 왜군을 속였어요. 왜군과 7일간의 치열한 싸움 끝에 큰 승리를 거뒀어요. 이 전투를 ‘진주대첩’이라고 해요. 하지만 김시민 장군은 시체 속에 숨어 있던 왜군의 총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이순신



왜군을 물리친 조선 최고의 장군

• 조선시대 • 장군/무신 • 1545~1598

이순신 장군은 학익진을 써서 왜군을 크게 물리친 한산대첩, 13척의 배로 130여 척의 왜군과 싸워 이긴 명량대첩 등 스무 번이 넘는 바다 전투에서 모두 이겼어요. 이순신 장군의 승리가 없었다면 왜군에게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물러나는 왜군과 노량 앞바다에서 싸우다 왜군의 총에 맞아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태조



조선을 세운 1대 왕

• 조선시대 • 왕 • 1335~1408

이름은 이성계, 태조는 왕명이에요. 고려 때 북쪽의 홍건적, 남쪽의 왜구를 물리치는 수많은 공을 세웠어요. 이성계는 중국 명나라의 요동을 정벌하라는 왕의 명령을 받고 군사를 이끌고 갔어요. 하지만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려 돌아왔어요. 이 사건을 ‘위화도 회군’이라고 해요. 돌아온 그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어요.

50~51

정종, 태종



조선 2대, 3대 왕

• 조선시대 • 왕 • 1357~1419, 1367~1422

조선의 두 번째 왕 정종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동생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이방원은 왕 자일 때 정몽주를 죽이고 고려를 무너뜨리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조선의 세 번째 왕위에 오른 후 왕의 권한을 강화하고, 많은 책을 펴내는 등 문화를 발달시켜 조선의 기틀을 잡았어요. 죽은 후에 태종이라는 왕명을 얻었어요.

세종



한글을 만든 조선 최고의 왕

• 조선시대 • 왕 • 1397~1450

세종대왕은 집현전이라는 연구 기관을 설치해서 많은 학자를 길러 내고 그들과 함께 한글을 만들었어요.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장영실의 혼천의 등 많은 발명, 황희, 맹사성 등을 정승에 임명해서 여진 정벌, 음악 정리, 서적 편찬 등 조선시대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왕이에요.

53~55

문종, 단종, 세조



조선 5대, 6대, 7대 왕

• 조선시대 • 왕 • 1414~52, 1441~57, 1417~68

문종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여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단종이 겨우 11살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러자 단종의 작은 아버지 수양대군이 힘으로 단종을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됐어요. 그가 바로 세조예요. 세조는 왕의 힘을 키우고 많은 책을 펴내서 조선의 문화를 발달시켰어요.

56~67

사육신과 생육신



단종을 지킨 신하들

• 조선시대 • 학자/문신 • 1392~1493

‘사육신’은 세조한테 쫓겨난 단종을 다시 왕으로 모시려다 죽은 여섯 명의 신하를 말해요. 사육신 중 성삼문, 박팽년, 이개는 집현전 학자 출신으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뒷받침했어요.

‘생육신’은 세조를 왕으로 모실 수 없다고 하고 시골에 내려가 평생을 산 여섯 신하를 말해요. 남효온, 김시습 등이예요.

논개



몸을 던져 왜군 대장을 죽인 여인

• 조선시대 • 의인 • ?~1593

임진왜란 때예요. 진주대첩 1년 후 왜군이 다시 진주성을 공격했고, 결국 빼앗기고 말았어요. 진주성을 차지한 왜군은 수많은 조선 군인과 백성을 죽였어요. 논개는 희생당한 진주 백성들의 복수를 위해 왜군 대장을 꺼안고 남강에 뛰어들어 함께 죽었어요.

권율



행주대첩을 이끈 장군

• 조선시대 • 장군/무신 • 1537~1599

왜군이 조선의 수도 한양을 점령하자 권율 장군은 행주산성에서 싸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왜군을 크게 물리쳤어요. 이 전투를 ‘행주대첩’이라고 불러요. 임진왜란 때 육지에서 거둔 제일 큰 승리였어요. 당시 여성들이 행주치마에 돌을 실어날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홍길동



소설 『홍길동전』의 주인공

• 조선시대 • 예술가/주인공 • ?~?

어머니의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차별받던 홍길동은 집을 뛰쳐나와 활빈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을 돕고, 도술로 외적의 침입을 무찌르고, 나중에는 울도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되지요.

모두 허균이 지은 소설 속의 이야기예요. 허균은 조선을 넘어 중국 명나라에도 이름이 알려졌을 만큼 뛰어난 문장가였어요.

임꺽정



가난한 백성을 도운 의적

• 조선시대 • 의인 • ?~1562

의적은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도둑’을 말해요. 임꺽정은 조선 시대 가장 낮은 신분인 백정 출신이었어요. 가난한 백성들을 모아 부잣집이나 관청을 습격했어요. 그렇게 얻은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줬어요. 하지만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했어요.

72~74

삼학사



청에 굴복하지 않은 세 학자

• 조선시대 • 학자/문신 • 1586~1637

임진왜란 후 여진족이 만든 후금이 1차에 이어, 청나라로 이름을 바꾼 뒤 2차로 침략했어요. ‘병자호란’이에요. 왕과 신하들은 남한산성으로 피난했는데 포위당하자 항복하자는 쪽과 싸우자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었어요. ‘삼학사’는 싸우자고 주장했던 홍익한, 윤집, 오달제를 말해요. 결국 항복했고 삼학사는 청나라에 끌려가 죽었어요.

박문수



조선시대 제일 유명한 암행어사

• 조선시대 • 학자/문신 • 1691~1756

왕의 특별한 명령을 처리하는 관리를 ‘어사’라고 해요. 특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몰래 활동하는 관리를 ‘암행어사’라고 해요. 암행어사는 마패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했어요. 박문수는 어사가 되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못된 양반들을 벌졌어요. 이런 이야기가 퍼져서 나쁜 관리를 벌주는 ‘암행어사 박문수’ 이야기가 만들어졌어요.

한식봉



어머니와의 일화로 유명한 명필

• 조선시대 • 예술가/주인공 • 1543~1605

“나는 떡을 썰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삼 년 공부를 마치고 자신만만하게
집으로 돌아온 한석봉에게 어머니
가 불을 끈 채 말했어요. 그 결과는
어머니가 썬 떡이 훨씬 바르고 흐트
러짐이 없었어요. 한석봉은 다시 붓
글씨 공부를 해서 유명한 명필이
됐어요.

김홍도



『단원풍속도첩』을 그린 화가

• 조선시대 • 예술가/주인공 • 1745~1806(?)

‘단원’은 김홍도의 호예요. 궁궐의 화가로 뽑혀서 영조와 정조 왕의 초상화를 그렸어요. 당시 왕의 초상화는 최고의 화가로 인정받아야만 그릴 수 있었어요. 300여 점에 이르는 그림이 전해지고 있는데 백성들의 평범한 생활 모습을 그린 풍속도가 제일 유명해요.

김삿갓



조선의 방랑 시인

• 조선시대 • 예술가/주인공 • 1807~1863

진짜 이름은 김병연인데 늘 삿갓을 쓰고 다닌대서 김삿갓이라고 불렀어요. 김병연은 과거 시험에서 못된 관리를 비판하고 욕하는 글을 지어 냈어요. 알고 보니 그 관리는 바로 자기 친할아버지였어요. 김병연은 자신을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라 여겨 그때부터 삿갓을 쓰고 방랑 생활을 하며 여러 시를 남겼어요.

김정호



『대동여지도』를 만든 학자

• 조선시대 • 학자/문신 • 1804(?)~1866(?)

김정호는 여러 가지 지도 자료를 모으고 부족하면 직접 답사하면서 27년에 걸쳐 『대동여지도』라는 22권짜리 지도를 완성했어요. 『대동여지도』는 병풍처럼 접을 수 있는 22권짜리 책이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기 편리했어요. 모두 펼치면 건물 3층짜리 높이나 될 만큼 길고, 우리나라 땅을 꼼꼼하게 그린 조선 최고의 지도예요.

영조



신문고를 설치하고 탕평책을 편 왕

• 조선시대 • 왕 • 1694~1776

신문고는 ‘억울한 백성이 울리도록 궁궐 밖에 설치한 커다란 북’이에요. 태종 때 처음 설치했다가 없어졌는데 영조가 다시 설치했어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죠. 또 신하들이 편을 나눠 싸우는 것을 없애기 위해 ‘탕평책’을 폈어요. 자기 아들 사도세자(정조의 아버지)를 뒤주에 가둬 죽인 비극적인 일도 있었어요.

정조



규장각을 설치한 조선의 개혁 왕

• 조선시대 • 왕 • 1752~1800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는 영조의 미움을 받아 쌀통인 뒤주에 갇혀 죽었어요. 그리고 영조의 뒤를 이어 정조가 왕이 됐어요. 정조는 궁궐의 도서관 역할을 하는 규장각을 설치해서 뛰어난 신하와 학자들을 길러내고 조선의 나쁜 점을 고쳐 나갔어요. 탕평책을 펼치고 왕의 친위부대 장용영을 설치하고 수원에 화성을 쌓았어요.

정약용



『목민심서』를 지은 학자

• 조선시대 • 학자/문신 • 1762~1836

정약용은 한강에 배다리를 만들고, 거중기를 발명해서 수원에 화성을 짓는 등 정조의 개혁을 뒷받침했어요. 하지만 정조가 죽고 난 뒤 천주교를 믿는다는 죄로 18년 동안 전라도 강진으로 귀양을 가게 됐어요. 귀양 생활을 하면서 정약용은 500권이 넘는 책을 지었어요. 그중 가장 유명한 책이 『목민심서』예요.

전봉준



동학농민운동의 대장

• 조선시대 • 의인 • 1855~1895

동학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믿는 종교예요.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나쁜 관리와 외적을 몰아내자고 나서서 싸운 것이 ‘동학농민운동’이에요. 전봉준은 그 운동의 대장으로 ‘녹두 장군’이라 불렸어요. 농민군은 결국 관군에게 패하고, 전봉준은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어요.

김대건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

• 조선시대 • 종교인 • 1821~1846

자신이 믿는 종교를 지키려다 죽는 것을 ‘순교’라고 해요. 김대건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김대건은 천주교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가 됐어요. 그리고 붙잡혀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황진이



서화가무에 뛰어난 여성 시인

• 조선시대 • 예술가/주인공 • ?~?

황진이는 서화가무 모두에 뛰어난
기생이었어요. 서화가무란 ‘글, 그
림, 노래, 춤’을 말해요. 하지만 여
성인데다 신분도 낮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주를 마음껏 펼칠 수 없
었어요. 그런데도 뛰어난 글솜씨
를 인정받아 오늘날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여성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홍경래



평안도 농민봉기 대장

• 조선시대 • 의인 • 1771~1812

1811년, 홍경래는 평안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던 농민들을 모아서 고을의 관아를 습격했어요. ‘홍경래 난’의 시작이에요. 불과 10일 만에 7개 고을을 차지하여 백성들에게 관아의 곡식을 나눠줬어요. 관군을 맞이해서 4개월 동안 치열하게 싸웠지만, 정주성에서 관군에게 패하고 홍경래는 결국 죽임을 당했어요.

김옥균



조선을 개혁하려다 실패한 관리

• 조선시대 • 학자/문신 • 1851~1894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조선을 바꿔야 한다는 ‘개화사상’을 가진 김옥균과 젊은 관리들은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신분제를 없애는 등 조선을 바꾸고자 했어요. 그래서 일본 군대의 지원을 받아 정권을 얻었어요. 이것을 ‘갑신정변’이라고 해요. 하지만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3일 만에 힘을 잃고 김옥균은 일본으로 도망가야 했어요.

안중근



이토히로부미를 암살한 독립운동가

• 조선~대한제국 • 의인 • 1879~1910

1909년, 안중근은 ‘을사늑약’을 강제로 맺게 하는 등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선 일본 최고 관리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권총으로 쏘아 죽였어요. 일본이 저지른 죄를 묻고 전 세계에 일본의 속셈을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지만, 안중근은 당당하게 일본에 맞서다 이듬해 뤼순 감옥에서 죽었어요.

이완용



일본에 우리나라를 판 매국노

• 조선~일제강점기 • 학자/문신 • 1858~1926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파는 것’을 매국이라고 해요. 이완용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는 ‘을사늑약’을 강제로 맺는 데 앞장섰고 1910년에는 우리나라의 권리를 완전히 빼앗는 ‘한일합병 조약’을 맺는 데에도 앞장섰어요.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됐는데, 이 시기를 일제강점기라고 해요.

윤동주



「별 헤는 밤」을 쓴 저항 시인

• 일제강점기 • 예술가/주인공 • 1917~1945

윤동주는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예요. 그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저항해 독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를 썼어요. 일본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하던 중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받아 일본의 후쿠오카 감옥에 갇혀 끝내 죽고 말았어요. 대표 시로는 「별 헤는 밤」, 「서시」 등이 있어요.

지식영



종두법을 들여온 의학자

• 조선~일제강점기 • 학자/문신 • 1855~1935

천연두는 전염성이 강하고 사망률이 높은, 위험한 병이에요. 영국의 의사 제너가 소에서 뽑은 물질로 천연두를 예방하는 약을 만들고 이를 주사하는 ‘종두’를 개발했어요.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엔 서양의 종두법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석영이 종두법을 최초로 들여와 이를 실시했어요. 덕분에 우리나라도 천연두를 막을 수 있었어요.

손병희



33인 독립선언을 이끈 독립운동가

• 일제강점기 • 의인 • 1861~1922

동학의 지도자인 손병희는 동학의 이름을 천도교로 바꿨어요.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을 모아 1919년 3월 1일 ‘대한 독립 선언’을 했어요. 역사적인 3·1 운동의 시작이에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민족 대표 33인’이라고 해요. 이 일로 손병희는 체포되었고 감옥에서 얻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유관순



만세운동을 하다 죽은 독립운동가

• 일제강점기 • 의인 • 1902~1920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의 독립선언을 시작으로 3·1 만세운동이 들불처럼 번져 나갔어요. 17세의 유관순은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가 만세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혔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만세운동을 계속하다가 일본 헌병들의 고문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숨을 거뒀어요.

안창호



흥사단을 설립한 독립운동가

• 일제강점기 • 의인 • 1878~1938

도산은 안창호의 호예요. 안창호는 우리나라가 독립하려면 젊은 지도자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흥사단을 만들고 점진학교, 대성학교를 세우는 등, 독립운동을 펼쳤어요. 그러다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감옥에서 얻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방정환



어린이날을 만든 아동문학가

• 일제강점기 • 예술가/주인공 • 1899~1931

나라의 미래는 어린이에게 있다는 생각으로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고 어린이날을 처음 정했어요. 또 『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들어 여러 동요, 동화 작가를 찾아내고 작품을 실었어요. 방정환 자신도 수많은 작품을 발표했어요. 어린이를 위해 살다가 33세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수일과 심순애



소설 『장한몽』의 주인공

• 일제강점기 • 예술가/주인공 • ?~?

일제강점기에 작가 조중환이 소설 『장한몽』을신문에 연재했어요. 『장한몽』은 원래 일본 소설이었어요. 『장한몽』은 남녀 주인공 이수일과 심순애, 그리고 장안 최고 부자 김종배 사이에 얽히고설킨 사랑 이야기예요.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연극,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오랫동안 사랑받았어요.

김두한



김좌진 장군의 아들

• 일제~대한민국 • 의인 • 1918~1972

김두한은 청산리 전투를 이끌었던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의 아들로 유명해요. 그를 소재로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김두한은 뒷골목 싸움패가 됐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본인을 보면 혼내줬다고 해요. 훗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상



소설 『날개』를 지은 작가

• 일제강점기 • 예술가/주인공 • 1910~1937

“날자.(생략) 한 번만 더 날아 보자
꾸나.” 이상의 대표 소설 『날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오감도』라는
시를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의 잠꼬대’라고 했어요.
시대를 뛰어넘는 이상의 천재성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안타깝게
도 26살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
었으니 그가 작품을 쓴 건 20살부
터 불과 6년밖에 안 돼요.

이중섭



「황소」그림을 그린 화가

• 일제~대한민국 • 예술가/주인공 • 1916~1956

너무 가난해서 가족과 헤어져 살
아야 했고, 종이 살 돈이 없어서 담
뱃갑의 은박지에 그림을 그리기
도 했어요. 이중섭은 소, 닭, 어린
이, 가족 등을 주로 그렸어요. 특히
소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흰 소」,
「황소」 등이 대표작인데 소 그림에
서 가난, 전쟁의 어려움을 이겨내
는 우리 민족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어요.